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 *Jesus Defeated The Power Of Death*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5:12-24

주님의 부활은 전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의미와 감격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고난의 한 주간의 여정, 즉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더듬어 봐야 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기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surrection of our Lord was ‘the historical event’ that moved all of mankind from death to life. However, in order to feel deep gratitude and to proper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resurrection, we must grope after the journey and road of suffering that Christ had to walk the week prior to His crucifixion. Therefore, we will take a look at the journey of Christ's suffering.

예수님께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먼저 배신의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해주시며, 회계의 직분을 맡기셨고, 수많은 기사이적과 생명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유다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 제자가 스승을,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음에 내어주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Before suffering crucifixion on the actual cross, Jesus suffered the nailing by the betrayal of his loving disciple. Though He knew of Judas' betrayal, Jesus loved him till the end. Judas was allowed the opportunity to be the treasurer and witnessed many signs and miracles as well as the continuous occasion of hearing the Word of Life. This was to ensure Judas the possibility to turn from his ways and repent. However, because Judas was blinded by money, he committed the biggest sin of betrayal – the disciple sold his own teacher and the creator, leading the Lord of Creation to His death.

가룟 유다는 검과 몽치로 무장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살인의 표시로 변질시켜 스승을 원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지도자들 앞에서 심문을 받고 거짓 증거를 통해 이단으로 정죄되어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단정죄에 앞장섰던 인물들은 ‘대제사장과 온 공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주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Judas came with a crowd who carried clubs and swords and turned Jesus over to them with a kiss, which was used as ‘the sign of murder’ instead of its original intent as ‘the sign of love’. As a result, Jesus stood trial before the religious leaders and was then turned over to Pilate. The head leaders of people who persecuted Jesus as a heretic were ‘the religious leaders’. These religious leaders, who should have led the people to Jesus, instead were only blocking the path to Him by condemning Him as a heretic.

당시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빌라도에게 넘겨진 주님은 그때부터 피조물인 인간의 손으로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위해 창에 찔림을 당하셨고,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의 입술의 죄로 말미암아 주먹과 손바닥으로

입술을 맞으셨습니다. 그가 찢림은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인함이었지만 사람들은 “저가 죄가 많아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 53:4).

The moment Jesus was turned over to the ecclesiastical authority and then to Pilate, He suffered by the hands of His creation. Because of the sins committed from our hearts, Jesus was pierced with a sword. Because of the sins committed by our minds, a crown of thorns was pierced into His skull. Because of the sins committed with our lips, His lips were slapped and beaten with fists. Many people thought that Jesus was beaten and pierced because of His ‘many sins’, not knowing or realizing that all these things were done to Him because of all of our sins.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 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 시에 운명하시기까지, 빛이 있는 오전에 세 말씀, 암흑으로 변한 오후에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버지께 죄 용서를 구하셨고 (눅 23:34), 우편강도에게 ‘낙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눅 23:43). 세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여자여’ (요 19:26) 라고 부르셨습니다.

While Jesus was on the cross from 9 am to 3 pm, He said three things before noon and four after noon. First, He prayed for forgiveness (Luke 23:34); second, granted 'paradise' to the thief on the right (Luke 23:43); and third, called His physical mother ‘woman’ (John 19:26).

육신으로는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아브라함을 창조하셨고, 그러기에 육신의 어머니도 예수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여자여!’라는 부르심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을 성취하려는 예수님의 공적 입장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Physically, Jesus is her son, yet spiritually He is the Lord of all Creation. He created Abraham, therefore even His ‘physical mother’ is from Him. Calling His mother ‘woman’ while on the cross reveals the fact of His position as public mission to blot out all sins of mankind and ultimately to complete the salvation.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피조물인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캄캄한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도 생명의 구주, 하나님 이심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뱃속에 있어도, 핏덩어리 아기일 때도 분명 구세주이십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완성하신 후에는 노아 때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영으로 전도하셨다고 베드로전서 3:18-20 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벧전 3:18-20).

Jesus had died at the hands of His creation and now was covered in the dark grave. Though Jesus was beaten and hung on the cross, he is still the Lord of Life. Without a doubt, He is God, even when He was the newborn baby of Virgin Mary. He was crucified because of mankind's sin and after the completion of salvation the Bible in 1 Peter 3:18-20 tells us that He went and witnessed to those who had perished during the flood of Noah.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을 체험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당돌한’ 신앙입니다 (막 15:43). 그러한 신앙은 부활신앙의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In what way does the life of a believer who has experienced the resurrection of Christ differ? It is with 'fearless faith', just as Joseph of Arimathea went to Pilate and asked for the body of Jesus (Mark 15:43). This type of faith is only possible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resurrection.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부활시 죽은 성도들이 많이 살아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마 27:52-53) 산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기초로 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변화의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esus is Alive! Just as many came to life after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Mark 27:52-53), we must lift up the banner of the cross with our base foundation coming from the faith of the resurrection and fearlessly marching to heaven with our eyes toward transfiguration.